

## '문없는 문' 나온 큰스님들



◇관음스님 ◇도천스님



◇구암스님 ◇원공스님

관음스님 천불선원 후학제접

도천스님 40년간 두문불출

구암스님 평생참선 '절구통'

원공스님 옷 두벌 22년 만행

1964년 천축사 주지 정영스님은 선자들이 참선도량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듣고 무문관의 필요성을 절감, 처음으로 천축사에 공식적인 무문관을 개설했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6년 결계에 들어갔는데, 2회차를 마친 후 79년까지 100여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었지만 기한을 제대로 채운 스님은 그리 많지 않다. 너무나 규칙이 엄했기 때문에, 보문 관음 구암 제선 현구 지호 경산 도천 관묵 현장 도영 석영 무불 원공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 이 이름을 남겼을 정도다.

당시 수행 참가자 가운데 현존하는 스님은 관음스님(천축사 조실) 도천(현악사 조실) 구암(하남 광덕사 주석) 원공(천축사 주석)스님, 범어사 금오선원과 강원에 주석했던 대강백 지호스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 문없는 문에서 치열하게 정진하다 입적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관음스님은 천축사 6년 번복수행을 마친 후 당대 최고의 강법자 선승으로서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직지사 천불선원 조실로 후학들을 제정하고 있다.

역시 조계종 원로의원인 도천스님은 대문산 태고사에서 40년간 두문불출하며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벽장정규를 물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남 광덕사에 주석하는 구암스님은 66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재방의 선원에서 참선만 해 온 절구통 수좌로서, 모든 소임을 마다하고 작은 절에서 수행에만 매진하고 있다.

천축사 무문관의 마지막 수행자인 원공스님(천축사 주석)은 22년간 1년의 절반 이상을 꼬박 '만행' (기별도 전하지 않은 채)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차를 타지 않고, 갈아입을 옷 두벌만을 지닌 채 무문관 3층의 한 방을 지키고 있다. '산에 도라지꽃 심는 사람들'과 함께 백두대간을 중주하기도 했고, 북한 동포 돕기 운동도 벌여왔다.

김재경 기자

## 무문관 수행 전국 30여곳 60여수좌 용맹정진

# 독방서 화두와 씨름 '부처되기'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

겨우 몸 하나 움직일 만한 공간, 움막도 좋고 토굴이라도 좋다.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몇 년이고 바깥 세상을 피한다.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버리거나 못질을 해버린다. 이를 흔히 '무문관' 수행이라고 부른다. 선종의 유일한 적자(嫡子)임을 자부하는 한국불교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도를 구하는 이도 드물어 불법이 쇠퇴하며, 교만과 시비가 넘치게 된다'는 말법(末法)시대, 승가의 수행기풍과 위계질서도 날로 흐트러지고 있다. 그러나 매년 동·하안거에 수천여명의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문관' 수행의 전통이 지방의 선원과 토굴에서 되살아나고 있으니, 불교 중흥의 서광이 아닐 수 없다.

'무문관'은 원래 중국 송나라 선승인 무문(無門) 혜개(無門慧開)가 지은 책(《선종무문관》이라고도 함) 이름, 깨달음의 절대경지를 '무(無)'라고 표현하고, 이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한 책이다.

조주(趙州)스님에게 한 학인이 '개(狗子)에게



◇백담사 무공선원에는 9명의 수좌들이 무문관 수행중이지만, 고요하기가 물속 같다. 그야말로 적멸(寂滅)의 공간이다

### 움막으로 토굴로

한번 들어가면

몇년이고 면벽

하루한끼 일종식

죽기 각오 정진

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없다(無)'고 대답했는데, 이때의 '무'란 세상에서 말하는 유에 대한 상대적 '무'가 아니라, 유무의 분별을 떠난 절대적 '무'를 가리킨다는 뜻에서 책의 제목이 유래했다.

문없는 문을 닫고 정진하는 '폐문 정진(閉門精進)'법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중국의 조주, 고봉스님 등이 죽기를 각오하고 정진했다는 '사관(死觀)'도 무문관 수행의 일종이었다. 한말 경허스님이 통학사에서 폐문 수행하고, 일제시대 효봉스님이 금강산 신계사 선방에서 3년간 두문불출하며 정진한 것도 무문관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정영스님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량을 세우면서부터다.

부처님의 6년 절산 고행을 본받아 65년부터 79년까지 매해 6년간 현대의 고승들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면벽 수행했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 용맹정진의 상징과도 같았던 천축사 무문관은 79년 원공스님(천축사 주석)을 끝으로 문을 닫았지만(현재는 출·재가 함께 하는 시민선방으로 운영), 93년 계룡산에서 다시 '문없는 문'이 열렸다.

계룡산 자락에 자리잡은 갑사 대자암 무문관.



◇지난 3월 9일 '무문관 3년 결사'를 마친 원공스님(전 조계종 교무원장이 수행하던 통도사 백련암 무문관) 시자가 공양을 올리는 모습



◇천축사 이후 무문관의 전통을 이은 계룡산 갑사 대자암의 '삼대당' 전경

천축사에 처음으로 무문관이라는 수행 기풍을 세운 정영스님이 20여년의 정성으로 조성한 '삼대당(三臺堂)'이란 이름의 선원이다.

3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지만 화상실을 갖춘 아담한 방이 12칸. 수좌들은 빈 움막으로 들어간다. 하루 한끼만 먹는 일종식에 국언정진은 기본. 의사소풍은 필담으로 이뤄진다. 세속 기준으로 보면 행무소의 독방보다 더 처절하다.

삼대당에는 현재 비구니 3명과 거사 1명을 포함한 12명의 수좌들이 5개월의 과정으로 7월 백중 때까지 용맹정진중이다. 방부는 2003년까지 이미 차 있으며, 앞으로는 2~3년 과정으로 전환할 계획. 시민선방(十方堂)에도 거사 8명, 보살 8명이 스님들의 수행열기를 따라 정진중이다.

대자암에 이어 94년 문운 언 무문관은 제주도 남국선원(선원장 해국스님, 현재 4번째 수행중인 도현스님을 비롯, 7명의 수좌들이 정진중이다.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갖춰 2005년까지 접수가 끝난 상태. 수행기간은 1년이 기본이나 연장

이 가능하다. 수행자의 법담은 평균 20년이상으로, 정진력을 검증받지 않고는 입방이 힘들다.

98년에는 설악산 백담사에도 '무공(無功)선원'이란 이름으로 무문관이 생겼다. 98년 하안거 때부터 3개월과정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난해 4월 15일부터는 3년과정으로 5년간 이상을 지낸 9명의 스님이 정진중이다.

지난 4월 10일에는 강진 백련사주지 해일도 처음으로 무문관 입재 방부를 받았다. 5명의 스님이 3개월간의 무문관 결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입재는 윤4월 보름달이 6월6일이다.

최근 빗장을 열고 3년간 독방 좌선을 마친 원공스님(통도사 백련암처럼 토굴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수좌들은 불경사 지조암, 태백산 도솔암 등 무문관 수행을 하는 토굴과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무문관은 30여곳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다 합치면 무문관 수행자는 60여명에 달하며, 매년 안거에 드는 2,000여 수좌의 3%에 해당한다.

###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멥쌀 5컵, 상추 100g, 팥 3컵, 소금 1작은술, 계피 1작은술

요리법: ① 쌀을 불렸다가 소금간을 해서 팥이 체에 내린다. ② 팥은 삶아서 찜이 체에 내려 계피가루를 섞는다. ③ 상추는 씻어서 조그맣게 찢어 팥가루에 버무린다. ④ 찜기에 팔고 물을 넣고 팔가루에 버무린다. ⑤ 찜기에 팔고 물을 넣고 ③의 재료를 담아 위에 팔고 물을 얹어서 찜낸다.

효능: 영양식, 신경을 안정시키는 라쿠루신이 있어 불면증에도 특효. 또 피부 건조를 막고 모발을 보호한다.

### 비타민 풍부... 불면증에 효과

땀을 뺀다며 '벌리 해인사를 바라보니 대웅전이 불타고 있어 상추 잎으로 물을 뿌리고 있었네.' 젊은 수좌 스님은 나옹선사의 대답이 너무나 황당해 믿기지 않았다. 수좌는 미륵암에 돌아와 스님들에게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하니 미친 중이 헛소리한다고 꾸지람을 받았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합천 해인사에서 객승 한 분이 미륵암에 올라왔다. 스님들 간에 서로 인부를 묻는 동안, 해인사 대웅전에 큰 불이 나서 다 전소 될 뻔했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소나기가 내려서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바로 나옹스님이 상추를 씻던 날이었다. 비로소 대중 스님들은 자신들의 할래를 해주고 닳은 입을 도맡던 스님이 나옹선사인 것을 뒤늦게 알아보았다.

불 상추가 먹기 좋을 만큼 자랐다. 상추계피시루떡은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에 내놓는 대표적인 연등절식 가운데 하나이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 정세재와 떠나는

## 선·식·기·행

### 상추계피시루떡



나옹선사가 오대산 북대 미륵암에 계실 때의 일이다. 대중 스님들의 식단이라야 감자보리밥과 된장에 상추쌈을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미륵암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라한 나옹스님이 상추쌈을 깨물어서 찢겼노라고 자칭하여 냇가로 나간지가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기다리다 못한 스님들은 된장만으로 공양을 해

아 했다. 반찬을 담당할 젊은 스님이 나옹선사를 찾아 깨물개로 나가보니 이게 쌀이냐. 나옹선사가 온몸이 땀을 흘리며 되어 두 손으로 상추뿌리를 잡고 깨물물에 여러 차례 담갔다 물을 뿌리는 게 아닌가. 옆에서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얼었다. 젊은 스님은 냇이 나간 듯 '스님 뭐하시는지 겁니까?' 그제서야 이마에 흐르는

